

다산포럼

정지창



[오피니언]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대통령선거의 열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인터넷 같은 매체들이 온통 BBK니 단일화니 정책 연합이니 하고 잠시도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자꾸자꾸 새로운 문제와 논란거리들을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정신이 산란해질 지경이다.

장날에 시장바다에 시끌벅적한 것이 당연하듯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판과 언론이 이처럼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빼딱한 시선으로 판을 보자

그러나 소소한 문제들을 쫓아보면 전체의 흐름과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에라 모르겠다. 뭘 대로 되라지. 누가 되든 그 놈이 그 놈일 텐데...'하는 자포자기로 빠지기 십상이다. 특히 살길이 막막한 농민이나 빈민, 비

정규직 등 이른바 소외계층이 이러한 심리상태에 근접해 있다. 거기다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 가운데에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우울증이나 무력감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혁에 대한

으로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라는 강박에 갇히고 말았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란 애당초의 구호는 좌·우나 진보·보수를 떠나 어느 쪽으로든 변했으면 좋겠다는 대중의 심리를 절묘하게 포착하여 선거판의 기선을 제압한 듯하다. 이에 맞서 여당측에서 내놓은 '잃어버린 50년 되찾은 10년'이라는 구호는 아무래도 궁색한 수세적 변명처럼 들린다. 자유당 말기에 애당이 들고 나온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에 밀려 자유당이 내놓은 '갈아봤자 별수 없다'라는 구호가 그러했듯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으로 돌아온 경험이 '또 속지는 말아야지' 하는 일종의 자제적 방어기제로 작용하는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70~80년대의 지식인들은 군사독재가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것 같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군사독재로부터 벗어났으나 외환위기와 세계화의 태풍을 맞고 나서는 민주화보다는 안정적

솔직히 나는 이명박 후보가 집권하여 대운하 공사로 남한 땅을 운통과 뒤집어놓든가,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여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그렇지만 정동영 후보에게서는 새로운 변화의 내용을 읽을 수 없다. 문국현 후보의 인간중심의 새로운 경제체제라는 구호는 매력적이지만 노무현 정권에 대한 경험 때문에 선뜻 지지하게 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노선은 옳지만 지지도가 제한적이다.

유권자들은 나름의 선택 포인트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 정권에 대한 감정에 따라 회고적 판단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선은 앞으로 5년간의 지도자를 정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상은 여의치 않더라도 최악은 피해야 한다.

유권자, 좀 영악해지자

그렇다면 좀 거리를 두고 빼꼼한 시선으로 선거판을 바라보면 어떨까?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모두 10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려 놓는 변화가 과연 개혁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돌려 놓으면 일자리가 저질로 생기고 돈벌이가 쉬워지는 세상이 올 것인가.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모두에게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부류나 집단에게만 좋아질 것인가. 너무 달콤한 약속은 대개 사탕발림이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경제적 민주화의 관점에서, 아니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언론이 검증을 포기하면 유권자가 좀 영악해질 필요가 있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최길성



250만 남도민의 애환과 삶이 담긴 영산강은 우리와 함께 숨 쉬며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채 도도히 흐르고 있는 우리의 강이다.

그동안 마시는 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었기에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너무나 무심하게 바라만 보았던 강이었다. 하지만 최근 영산강의 경제성 및 생태적 중요성이 부각돼 강을 살리기 위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영산강의 모습을 되찾는 일의 첫 번째 목표는 맑고 깨끗한 물이 안전하게 흐르는 생명의 젖줄을 만드는 일이다. 강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고, 생태계 서식처를 고려한 강으로 복원해

는 아름다움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장소이다.

네째로 남도 역사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 친환경적 개발이 영산강이 지난 지리·역사·문화적인 배경을 소홀히 하면서 진행된다면 숲은 모르고 나무만 보는 광이 되고 만다. 즉 수질개선 및 생태계보전과 함께 영산강을 바로 알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숙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 해 광주·전남의 시민단체와 지방의 제21 추진기구가 중심으로 '영산강살리기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유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환경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2008년 '제7회 전국 강의 날'

영산강을 우리의 후손에게 되돌려주자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담긴 강 문화를 창출하여 친수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사람은 예전부터 강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이에 적응하며 생활해 왔다. 따라서 강 주변에는 각종 문화유적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귀중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또한 물놀이와 고기잡이, 연등들이 등 각종 놀이가 행해지던 곳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의 장과 건강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 속의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강이어야 한다. 하천 경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의 흐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관의 다양성이며 물과 함께 자연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물과 녹음, 물의 동적 움직임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은 사람들의 틀에 박힌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

다. 대회'를 나주에서 준비하고 있다. 강의 대회를 통해 영산강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영산강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며 강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영산강은 자연과 인간의 희망이 담겨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협력과 이해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답고 생태적인 공간으로 영산강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수질만을 개선하려는 단순적 접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력 넘치는 하천을 만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상·하류 간, 지역 간, 유역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유역 공동체'를 건설해 영산강을 다시금 우리의 후손에게 되돌려주자. <푸른전남21협의회 사무처장>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지난해 한 방송사가 전국 유치원생(3~7세) 1천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동요 20곡을 설문조사한 결과, '곰 세마리'가 가장 좋아하는 동요로 꼽혔다. 이어 '아기염소'·'개구리와 올챙이'·'아빠 힘내세요'·'솜사탕'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좋아하는 동요인 곰 세마리 가사 "곰 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얘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아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는 뛰어보면 문제가 있다.

우선 '곰 세마리 한 집에 있어'라는 가사부터 틀렸다. 겨우내 나무둥치나 동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곰의 경우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자는 게 아니다. 한 마리씩 따로 잔다. 각 방을 쓰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엄마 곰은 날씬해'라는 가사, 곰 세계에서 암컷의 날씬함은 결코 자랑이 되지 못한다.

◇ 최종욱

광주우주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대선 보도 의혹 제기보다 정책 검증에 비중 둬야

대선공약은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선거일이 임박했음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난무하고 정작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정책선거가 실종된 느낌이다.

정치권은 연일 특정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제기와 반론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언론매체 또한 이에 편승하여 정책검증보다는 의혹제기 등 선정적 보도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적당한 수준의 네거티브 방식이 선거전략上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생결단식의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국가의 가장 큰 행사요 축제다. 결과만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 때문이다.

▲서양호·광주 동구구관위 흥보계장

아파트 스카이라인을 디자인 하자

얼마전 서울시가 1천 가구 이상, 10개 동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경우 전체의 30%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달리해서 지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층·중층·저층으로 층수를 달리해 건설해야 한다고 한다.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광주시도 서울시의 이같은 제도를 고려해 천편 일률적인 아파트 건설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

특히 문화 수도를 외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공공 디자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야 한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된 뒤 주민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예향과 문화수도에 걸맞게 광주 도심을 꾸미는 디자인 정책을 발굴, 마련해야 한다.

▲김진순·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시설

지방 부동산경기 살릴 특단의 대책 나와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투기재연 우려가 없는 지방의 투기과열

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추가 해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의 회생을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해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 내놓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아파트 미분양 해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의 회생을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해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로 그칠 수 있다. 중소형 주택에 한해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대출규제,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로 거래를 활성화 하지 않으면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중소형 주택에 한해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대출규제,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대입 수험생 혼선 부추기는 수능 등급제

대학의 수시모집이 입학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오는 29일 수시모집 면접을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등급과 지원대학을 알지 못한 채 응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수시모집이 입학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오는 29일 수시모집 면접을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등급과 지원대학을 알지 못한 채 응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차만别的 대학의 전형요강도 문제다. 주요 대학들은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최소화하면서 논술과 면접 등을 강화했다.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학원 수강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학자도 교수들은 수능 등급제와 대학마다 서로 다른 전형방식으로 개별학생을 지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수능 등급제가 대입 혼선을 부추겨서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오히려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첫 시행한 등급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류열풍하면 배용준·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와 이영애의 '대장금'을 떠올리게 된다. '겨울연가'는 일본에 '대장금'은 중국에 한류열풍을 일으켰다.

'겨울연가는 삶에 친진 이들의 가슴 한구석에 묻혀 있는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일깨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국내에서 지난 2000년 1월 방영된 이후 배용준과 최지우는 수많은 일본 팬들을 확보, 일본을 왕래할 때면 지금도 팬들의 성화에 응해야 할 정도다.

'대장금'은 조선 종종 때 대장금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전설적 인물인 장금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그동안 역사에 묻혀 있었던 한 여성의 성공사

를 그린 드라마다. 이 역시 2003년 9월 방영 이후 중국 대륙을 파고들어 한류열풍을 낳았다. 열풍은 멀리 유럽과 미국 등 지로 이어졌고, 이영애의 드라마 속 모습은 여객기 외장으로 등장, 외국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굳게 닫혀있던 북한사회에도 한류가 침투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바뀌고 허상도 깨지고 있다.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부유한 남한의 도와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국도로 경계한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남한의 풍요로운 생활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를 통한 문화 침투가 북한 당국의 경계와 달리 북한 주민들과 동질성을 회복, 통일을 앞당기는 진정한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